

엘에이

2019년 가을학기 온누리 한글학교를 마치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한글학교가 12월 14일에 가을학기 종강을 하였습니다. 이날 중정에는 한글 수업 학습결과물과 오후 활동 작품들을 전시하였고 오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리랑’ 가락에 맞춘 흥겨운 소고 춤과 ‘독도는 우리땅’임을 알리는 힘찬 난타를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2019년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해외 최초로 캘리포니

아주에서 매년 10월 9일을 공식적으로 한글날로 지정한 뜻깊은 해입니다. 이는 미국 내 소수언어의 기념일로서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한글교육을 해주고 싶은 온누리

한글학교의 고민은 방학중에도 계속됩니다. 한글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명 부장교사

얼바인

얼바인 온누리, 임직예배로 축제의 장 열려



얼바인 온누리교회(담당 박신웅 목사)는 12월 1일(주일) 오후 4시부터 2019년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번 임직예배는 1부예배와 2부 임직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7명

(장로 2명, 안수집사 14명, 권사 1명, 명예권사 10명)이 임직을 받게 되었다.

예배는 찬양과 주향한 찬양팀이 특순으로 ‘기름부으심’을 찬양했으

며, 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 박종길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였다. 박종길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Acts 29를 써내려가는 지도자’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며 첫째, 성령충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함과 둘째, 기적을 경험하는 지도자에 대해 선포했고 셋째, 지도자는 고난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2부 임직식은 서기 김재동 장로의 임직과정 보고를 시작으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장로 임직이 이루어졌고 안수위원으로 얼바인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장로

들 그리고 특별히 강일하 목사(미주 CGNTV 본부장), 이정엽 목사(LA 온누리교회 담임), 정장철 목사(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담임), 이민욱 목사(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담당), 금경연 목사, 이종실 목사, 정광렬 장로(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섬겨주었다. 마지막으로 임직식을 마치며 정광렬 장로(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축사를 강일하 목사(미주 CGNTV 본부장)는 권면을 하며 모든 임직식을 마치게 되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밴쿠버

밴쿠버 온누리, 성탄 축하 예배



2019년의 성탄절은 청년들의 난타로 시작되었다. 천사들의 전하는 기쁜 소식에 비상의 난타로 화답하는 패기찬 청년들의 용트림은 예수 탄생의 기적을 밴쿠버의 흐린 하늘을 뚫고 온누리에 울려 퍼진다.

온 세상이어 들으라!! 온 세상을 구하실 사랑의왕 예수의 탄생

을 기억하고 축하하라!! 어린 아이들도 노래하고, 학생들은 찬양하며, 청년들은 춤추며 예언한다. 아버지와 어미들은 가르치며 행하니, 이 모든 것에서 “세상아! 지혜를 배우라”. 성가대의 메시아 칸타타는 할렐루야를 세상에 전하는 깊은 메아리가 되어 온 세상을 위해 구주가 나심을

찬양하였다. 설교자는 ‘누가복음 1:26-38’을 읽으며 말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능력(성령)이 네게 임하니 신실한 종이 되어, 기록하신분의 계획하시는 뜻이 완성될 때까지 충성되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온누리 교회의 설교자, 송영동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행하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인해 그 발걸음은 활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정일 권사

관

관 온누리, 다양한 행사로 풍성한 12월 보내

“예수 안에 하나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



관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형철)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학교’와 ‘부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2월 첫주에 진행된 이번 관온누리 아버지학교에는 여러 젊은 아버지들이 참여하여 다시 한번 주님 뜻에 합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버지학교 수강생 이외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부부세미나를 개최하여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가정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다. 특별히 이번 부부세미나는 연리지 가족부부연구소의 박성덕 소장이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아버지학교에 참석했던 이창호 집사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며 “아내와 자녀의 마음을 들

어주고 이해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12월 24일 저녁 7시, 관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관온누리 크리스마스 가족파티가 열렸다. 예배의 시간이자, 축제의 시간이 된 이날 파티에서 김형철 목사는 “예수,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작은 것부터 용서와 화해를 하며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실천하자”고 전했다. 말씀 선포 이후에는 차세대 예품의 핸드벨과 치어리딩 공연과 꿈땅 어린이들의 유쾌한 연극인 ‘도둑들의 해피 크리스마스’가 올려졌다. 또한 관온누리교회의 가장 연장자들이 모인 갈렙순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으며, 마가순은 온가족이 함께 나와 현악기와 리듬악기, 그리고 신나는 찬양으로 이날 파티에

따뜻함을 더했다. 이날 파티는 맛있는 저녁식사와 선물교환, 년센스 퀴즈 등으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한 성도는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세주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함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겨울방학을 맞은 관온누리의 차세대 자녀들을 위한 겨울캠프 ‘엘림학교’가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엘림학교’는 학기 동안 타성에 젖어있고 학업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을 제공하는 인텐시브 캠프로서,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진의 섬김을 통해 영적인 양육과 지적인 훈련이 함께 어우러지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엘림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이승리 어린이(꿈땅)는 “엄마가 회사에

가면 할아버지 집에서 심심하게 있었는데, 엘림학교에서 재미있는 과학실험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선생님들과 놀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전했다. 김형철 목사는 “엘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진을 쳤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아시스였다”며 “방학을 맞은 우리 차세대들이 엘림학교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교회가 가장 좋은 곳,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엘림학교, 차세대 비전센터-아크홀,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관온누리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통신원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 온누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정장철 목사)는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전 교인이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가졌다.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성도들이 준비한 팻력으로 성탄의 기쁨과 풍성함이 더해진 시간이었다.

식사 후에는 힘찬 찬양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높이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 본격적인 페스티벌 순서가 진행되었는데 예쁜 아이들로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은혜와 감동 그리고 웃음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풍성해 보이는 광경에, 페스티벌 시작 전부터 이미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초와 꽃들로 꾸며진 교제의 식탁과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저녁과 선물에 서로를 위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공연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심에 감사했습니다.”

(성인순, 박기현 성도)

“이번에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 제일 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가지

의미에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데코레이션이 너무 예뻐고 특히 자막누가 했는지 우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대가족의 재롱잔치 같았던 분위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가족처럼 따뜻하고 서로 응원하고 마지막에 다같이 힘을 합쳐서 행사 뒤에 뒷정리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교회에 오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부, 임건 성도)

“이번 성탄페스티벌 발표를 위해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묵상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 시

간이었습니다. 또한 부서를 넘어서서 교회 전체가 함께 식사하고 웃고 축하할 때 정말 예수님 생일과 티같이 느껴지는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청년부, 곽은빈 성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었듯이, 산타모니카 공동체가 온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진영국 목사